

디지털 전환과 공간

Digital Transformation and Space

고민경*

《공간과 사회》는 20세기 후반 이후 근대성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탈근대적 대안을 모색했던 ‘공간적 전환’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양상을 소개하고, 한국의 도시와 사회공간에서 나타나는 사회-공간의 변화와 그에 따른 문제에 대해 토의하는 장을 만들어왔다. 2021년 31권 4호 ‘모빌리티와 비판적 공간연구’는 최근 인문사회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비판적 공간연구에 접목하여 ‘공간적 전환’의 논의를 이어가고자 했다. 이 특집호는 모빌리티가 공간에서 생산되고 통제되는 방식에 대한 비판, 이동에 내재한 사회적 실천과 정동,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의 변화를 탐색하며 모빌리티 담론의 확장을 시도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번 32권 1호는 최근의 사회-공간적 변화를 선도하는 또 다른 기제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져오는 사회-공간적 관계와 공간 경험의 변화를 탐색하여 ‘공간적 전환’의 확장을 다시 한번 시도하고자 기획되었다.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에 의한 생산 방식의 디지털화부터 이를 통한 일상 생활과 사회 및 경제의 전면적인 변화를 일컫는다(김준연 외, 2017).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공간적 침투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을까? IoT로 컨트롤하는 집, 디지털 박물관,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팜 같은 새로운 공간들은 더 이상

* 경북대학교 지리교육과 조교수(koh.geo54@knu.ac.kr).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전환이 공간과 조우하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과 공간의 조우는 우리의 일상이 이제 물질뿐 아니라 디지털이라는 비물질에 의해서도 (재)구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 사회에서의 디지털 전환은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이동 제한은 곧 디지털 기술을 통해 재택근무와 원격 수업으로 연결되었다. 이는 전통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었던 일터와 학교에 대한 경계와 제약을 허물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전환은 비단 물리적 거리와 공간의 제약을 약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는다.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했으며,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이 새롭게 재구성된다. 가상과 현실의 상호작용은 곧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가 모호해짐과 동시에 비물질의 세계가 물질세계를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디지털 기술이 공간으로 침투하면서 기존의 공간의 개념과 성격 및 활용, 더 나아가 공간을 장소화시키는 인간의 경험과 감정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활은 말 그대로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이환경의 논문은 코로나19 방역에서 새로이 나타난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도시공간이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시도이다. 전자출입명부 혹은 QR코드는 이동하는 신체를 실시간 디지털 데이터로 치환함으로써 방역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코로나19 이전에 QR코드 기술은 사용자가 스마트 기기를 직접 활용하여 코드를 읽는, 즉 정보를 소비하는 행태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전자출입명부는 시민들에게 직접 QR코드를 생산하기를 요구했다. 즉, 시민들은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신체로 작동하게 된 것이다. 이환경은 이를 포스트휴머니즘의 관점으로 신체-도구-지식 생산의 관계에 대한 탐색으로 풀어내며, 도시의 디지털 공간성을 규명해 낸다.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이 디지털 환경에 ‘들러싸여’ 있다는 고전적인 공간성에서 넘어서서 인간을 도시의 일상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을 체화한 존재로 바라볼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비인간 행위자이지만 인간 행위자에 부착되어 인간을 포스트휴먼 신체로 인식하게 한다. 이 신체는 ‘사람’이 아닌 확진 ‘케이스’로 인식되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양적 확산을 파악하는 하나의 단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육안으로 확인될 수 없다. 그렇기에 QR코드는 인간 신체를 정보화하는 ‘보강 기술’로 작동하여 신체를 디지털 단위로 전환한다. 그 결과 이동하는 시민의 QR코드 생성과 스캔은 가상공간을 생산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거나 기술이 도시에 ‘스며들어’ 인간의 행위를 규정 혹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을 체화한 포스트휴먼이 도시 공간에 새로운 연구 단위로 등장하게 됨을 시사한다.

한편 김목한의 연구는 이동통신 인프라가 도시 공간에 스며드는 과정에 주목하며, 기존 도시 연구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옥상’을 새로운 연구 대상으로 가져왔다. 이동통신 인프라는 이동통신 기지국의 설치, 도시공간 내에서는 중간건축의 옥상을 차지하는 형태로 가시화되었다. 그런데 ‘옥상’은 기존의 도시 연구에 있어 주요 연구 대상은 아니었다. 도시의 수직성에 주목한 연구들은 ‘초고층과’ 초심층과 같은 극단의 수직성에 집중하여 자본주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대비시키고자 했는데, 옥상과 같은 중간지대는 이러한 목적의 연구에 잘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Graham, 2014). 그러나 옥상의 공간성은 지난 세기 도시의 발달과 분명 함께 발달해 왔다. 옥상은 ‘가옥의 임계’이자 ‘잉여의 공간’이었고,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각종 인프라와 기능이 입지하는 곳으로 변모해 왔다. 옥상은 과거 공중 마당, 창고, 옥탑방으로 사용됐지만, 옥상 녹화와 태양광, 더 나아가 루프탑과 같은 새로운 도시의 수직 공간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김목한은 이 과정에서 옥상을 둘러싼 새로운 공간정치의 등장에 주목한다. 기지국의 설치는 기능적으로 유용하지만 도시미관을 해치고, 전파파로 인해 인체의 유해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초래한다. 또한 건물주는 기지국의 설치로 이동통신사로부터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지만, 이는 동시에 옥상의 전통적 기능—마당이나 창고,

옥탑방 등 — 과 경쟁한다. 단면적인 예이지만, 이는 옥상을 둘러싼 공간정치가 복잡하게 발생하고 있고, 더 심화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스마트시티의 본격적인 발전은 이와 같은 ‘옥상의 정치’에 대한 준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한다.

정예슬의 글은 음식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의 작업장의 지리를 탐색하며 이를 전치된 자들이 실천하는 장소 만들기의 사례로 제시했다. 플랫폼 경제는 노동의 공급과 수요를 한곳으로 모으는 디지털 인프라로, 물리적 장소가 초래하는 여러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추동을 이끄는 혁신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강성호, 2021). 그러나 플랫폼 경제는 전통적인 노동의 작업장의 개념 역시 변화시켰다. 플랫폼 노동자의 작업장은 법으로 규정된 물리적 사업장이 아니다. 이들은 여러 개의 플랫폼을 옮겨 다니고, 이들의 작업장은 이들의 이동으로 형성된 도시공간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은 법에 의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기 힘들고, 노동법의 보호에서 소외되곤 한다. 그렇다면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 장소는 과연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 정예슬은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전치’의 개념을 확장할 것을 제안한다. 전치는 강제성을 띤 물리적 이동으로 주로 이해되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에서 보면 사회적 변화에 따른 사회관계의 약화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노동자들의 장소에서 벗어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정예슬은 장소와 전치의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변증법적 과정이자 하나의 연속체로 바라보면서 전치를 장소의 재구성으로 이해해야 함을 제시한다. 즉, 현재의 노동법 상에서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을 전치로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실제 플랫폼 노동자들이 법적인 ‘노동자들의 장소’ 밖의 작업장에서 자신들의 장소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음에 주목하며 전치와 장소의 복합적인 관계를 흥미롭게 탐색해 냈다.

이상의 세 편의 논문은 디지털 전환과 공간의 접점을 탐색하여, 그동안의 공간 연구에서 주목하지 못했던 새로운 공간들을 연구 대상으로 제시한 의의가 있다. 디지털 전환은 과학정보기술이 그동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

상으로 현재의 우리의 일상생활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 한가운데에 바로 공간이 있다. 이번 특집호를 통해 탐색한 새로운 공간 이외에도 디지털 전환이 새롭게 변모해 내고 생산해 내는 공간이 무수히 많을 것이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디지털 전환과 공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나올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참고문헌

- 강성호. 2021.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고양: 미디어숲.
- 김준연·유재홍·박강민. 2017. 「제4차 산업혁명과 산업의 디지털 전환: 위기와 전략」.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6-003』. 성남: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Graham, S. 2014. "Super-tall and ultra-deep: The cultural politics of the elevator." *Theory, Culture and Society*, 31(7/8), pp.239~265.